

# 광주·전남선관위, 지방선거 투·개표 관리 총력

## 9명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 투·개표 과정 참관 부정선거 감시 등 발미 소란행위 등 엄중 조치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시·도 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인 3일 지역 투표소와 개표소에 대규모 관리 인력을 투입해 안전하고 원활한 투·개표 관리에 나선다.

부정선거 감시 등을 명분으로 투·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무단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1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본선거 당일 광주지역 359개 투표소와 5개 개표소에 투표 관리인력 5000여명, 개표관리인력 3300여명을 배치해 차질 없이 선거를 관리한다.

도선관위도 전남지역 785개 투표소와 22개 개표소 설비를 최종 점검

하고 투표관리인력 1만여명과 개표관리인력 6000여명이 안정적으로 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선거인은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시·도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투표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공공기관·단체 사무소, 주민회관 등이 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했다.

광주는 모든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장소에 마련했다. 전남도 전체 투표소의 99.61%인 782곳을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장소로 지정했다. 필요한 곳에는 임시경사로도 설치한다.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도 강화한다. 모든 투표소에는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기표대를 설치하고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와 특수형 기표용구 등을 비치해 시각장애인 등 신체적 불편이 있는 선거인의 투표를 지원한다.

개표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나선다. 시·도선관위는 선거일 전날인 2일 각 개표소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한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한 뒤 특수봉인으로 봉인하고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경찰 호송

을 받아 개표소로 이송한다. 구·시·군선관위가 보관 중인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도 선관위 직원·정당 추천 선관위원·개표참관인이 함께 경찰 호송을 받아 개표소로 옮긴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읍·면·동 단위로 실시간 공개한다.

공정선거참관단도 투·개표 전 과정을 살핀다. 광주·전남에서는 9명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이 관련 절차를 참관할 예정이다.

시·도선관위는 투·개표소 질서유지에도 강력히 대응한다. 투표소에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선관위 위원과 직원 등 법에서 정한 관계자만 출입할 수 있다. 개표소 역시 선관위 위원과 직원·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개표참관인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김도기 기자

## 서구, 밥상 위 탄소중립 ‘그린한끼’ 운영 11월까지 이론·요리체험…저탄소 식생활 실천 확산

서구가 미래 세대와 지역 주민의 저탄소 식습관 형성과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나선다.

서구는 11월까지 창작농성품 커뮤니티센터에서 에코하우스 환경교육 ‘탄소중립 그린한끼’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먹거리 분야 탄소배출 문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주민들이 채식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며 비건 식생활의 환경적 가치를 이해하고 일상 속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병행해 참여자들의 이해와 흥미를 높인다. 이론교육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비건의 정의와 기준, 다양한 비건 식품 등을 소개한다.

또 육식 중심 식문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 저탄소 식습관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공유

한다. 체험교육인 요리교실에서는 참여 대상에 따라 맞춤형 실습을 진행한다.

학생 대상 교육에서는 비건 식빵과 치즈를 활용한 ‘비건피자’ 만들기 체험하고 성인 대상 교육에서는 병아리콩을 활용한 중동식 스프레드 ‘후무스’와 ‘토마토 마리네이드’ 만들기를 체험을 운영한다.

한편 서구는 미래세대의 환경의식 제고와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현장 중심 환경교육도 운영한다. 오는 24일까지 운전초·성진초·극락초등학교와 서석중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진행한다.

또 17일까지 상무초·풍암초·화정초·빛고을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창작뮤지컬 ‘지구살리기 대작전’을 운영한다. /조선주 기자

## 전남소방, 폭염 대비 온열질환 맞춤 구급체계 가동

전남소방본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오는 9월까지 온열질환 맞춤형 구급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기후 전망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70%로 전망돼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소방본부 통계에서도 최근 3년간 전남지역 폭염 관련 구급 출동은 총 82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응급처치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733명에 달했다. 본격적 영농철을 맞아 야외 근로자와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전남소방본부는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구급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5월부터 전남 전역에서 운영하는 모든 구급차에 열음조끼, 식염포도당, 이온음료 등 8종의 폭염 대응 장비를 상시 적재한다. 현장 도착 즉시 환자의 체온을 낮추고 수분을 공급하는 등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관내 구급차 출동으로 공백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투입되는 구급 장비 적재 소방펌프차량(펌프불런스)에도 폭염 대응 장비를 추가로 탑재한다.

## 광양시, 에블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 대비 주의 당부

정부는 에블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한 상태다. 에블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약 25~90%에 이르며, 국내에는 아직 상용화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중요하다.

유행지역에서 에블라바이러스에 감염된 과일박쥐,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영양 등 야생동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사냥한 동물을 취급·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사람 간 감염은 에블라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상처 난 피부 또는 점막에 닿을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회복 환자와의 성 접촉이나 모유수유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풍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 중점감염관리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한 뒤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바로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광양시보건소(☎061-797-4011)에 신고·상담해야 한다. /광양·조준의 기자



장흥소방서,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장흥소방서는 지난달 29일 장흥군 부산면 소재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센터에서 2026년 긴급구조종합훈련 및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장흥소방서 제공

## 5·18단체, 스타벅스 본사에 ‘탱크데이’ 논란 항의 서한

“본사 차원 재발 방지 가이드라인과 감독 체계 수립해야”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모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본사를 향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사태와 관련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단체들은 항의 서한을 통해 “스타벅스 코리아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던 군부 독재의 확산 수단인 ‘탱크’를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을 감행했다”며 “이는 민주화운동

희생자들과 유가족 등에 상처를 남긴 심각한 역사 모욕 행위이자 반인권적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I)과 인권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현재 국내 라이선스 및 운영권을 가진 이마트(신세계그룹) 측의 이러한 몰역사적 행태는 스타벅스가 쌓아온 전 세계적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스타벅스 본사를 향한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스타벅스 본사는 스타벅스 코리아 및 현지 운영사인 이마트(신세계그룹) 측이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무책임한 마케팅을 기획하고 승인한 경우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내의 심각성을 인지해 책임감 있게 전면에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며 “스타벅스 본사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5·18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향후 이러한 역사 모욕 및 인권 침해적 마케팅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가이드라인과 감독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기 기자

## 광주 카페·패스트푸드점 일회용품 사용 여전

플라스틱 빨대·식기류 사용량 전년 대비 증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지역 대형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실시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실태 현장. /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 카페·패스트푸드점 일회용품 사용이 정부의 ‘탈 플라스틱’ 정책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에도 불구하고, 지역 매장 일회용품 사용 실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자원순환사

회연대는 지난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광주 지역 프랜차이즈 매장 57곳(협약 체결 38곳·미체결 1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회용품 이행 실태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매장 내 일회용품(플라스틱·종이) 사용 비율은 협약 체결

업체가 3.3%로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미체결 업체(1.8%)보다 높았다.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와 식기류 사용량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향후 모든 빨대의 사용 제한을 예고했으나, 협약 체결 업체의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률은 81.6%로 전년(69.8%) 대비 11.8%포인트 증가했다. 미체결 업체 역시 매장 내 플라스틱 스푼 사용률이 지난해 0%에서 올해 12.5%로, 플라스틱 포크는 5.3%에서 12.5%로 늘었다.

개인접객센터비 제도의 경우 협약 체결 업체 중 텀블러 합인을 제공하지 않는 매장이 42.1%로 나타났다. 합인 혜택을 매장 내에 홍보하는 곳은 5.3%에 불과해 전년보다 10.5%포인트 감소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자율과 선의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일회용품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수치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 광산구,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본격화 체형 분석 로봇부터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까지

광산구가 남부대학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을 본격화했다.

광산구는 지난 27일 장애인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동아리 ‘다시봄’ 회원들과 함께 남부대학교 내 인공지능(AI) 재활실(신체기능증분실)을 방문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첨단 로봇 인공지능(AI) 기술과 정밀 분석 장비가 결합한 기반 시설을 통해 근육의 대칭성, 보행 패턴 등을 정밀 측정했다.

이후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참여자 개인의 신체 강화를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15일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와 남부대학교 RISE 사업단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선보이는 첫 번째 성과다. 양 기관은 대학의 우수한 기반

시설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지역 장애인의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산구는 이번 동아리 활동을 시작으로, 향후 파킨슨병 환자들로 구성된 자조모임 동아리와 장애인 보호작업장 노동자로 구성된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총 5회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대학의 우수한 RISE사업단 시설 덕분에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첨단 인공지능(AI) 기술과 지역사회 재활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재활 관련 사업 등 자세한 사항은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재활보전팀(960-8824, 64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기 기자